

담임목사, 그는 누구인가? -담임목사의 은사를 점검하라-

1. 서론 / 담임목사의 리더십

담임목사는 특별히 선택되고 부름 받은 사람이요 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족장이나 사사가 지도력을 행사했고 그 후에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하였습니다. 신약시대에는 12제자나 사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지도력을 행사하였고 초대교회는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들을 통해 지도력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세 가지 중요한 지배 질서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가정의 구조요(남편과 아내), 둘째는 교회의 구조요(목사와 교인), 셋째는 국가의 구조(정부와 국민)입니다. 이러한 지배 질서에는 지도자가 있고, 지도자를 따르는 자가 있으며, 권위자가 있고, 그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하의 관계이기 보다 질서의 관계입니다.

교회에도 교회의 영적인 지배 구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12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교회 안에는 여러 기능의 지도자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목적은 첫째, 전도를 하며 둘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셋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요 21:15-17)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31절에서 목회자로서의 심정을 고백하였습니다. 목사의 기본 임무는 양떼를 돌보는 일입니다. 원수의 손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고 그들을 바로 세워주기 위하여 눈물로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심정을 가진 자가 목회자입니다.

목사 중에서도 특별히 영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공동체의 책임을 진 사람을 가리켜 담임목사라고 합니다. 담임목사에게는 일반 목사와 달리 그 공동체를 이끌고 갈 강력한 영적인 권위와 비전과 지도력을 요구합니다.

그는 마치 망망대해를 헤쳐 나가는 배의 선장과 같고 창공을 날아가는 비행기의 기장과 같고 미지의 세계를 정복하려는 탐험 대장과 같습니다. 그의 임무는 정확한 목표 지점을 향해 가는 일이며 모든 대원들로 하여금 일심으로 협력하여 그 일을 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담임목사에게는 영적 지도자가 지녀야 할 지도력과 더불어 일반적인 지도자가 지녀야 할 지도력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2. 담임목사의 영적 리더십

담임목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영적인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지도력이 아무리 뛰어 난

다 할지라도 영적인 지도력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영적인 지도력의 기초 위에 일반적인 지도력이 나타날 때 완벽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리더십에 완전히 의지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요(겸손), 선한 목자요(희생), 충성스러운 청지기(책임)입니다.

1)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영적 지도자의 제1의 우선 순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으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담임목사는 자기의 생각과 야망에 의해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목회 하는 사람입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그 비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는 꿈의 사람이요, 비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서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요, 지도자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담임목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부름에 기초합니다.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인간적인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요, 준비된 사람입니다. 조직을 관리할 능력이 있고 사람의 은사를 활용하고 격려하고 위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을 설득할 줄 알고 동기부여하여 목표를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헌신된 사람이요, 목자의 심정을 가진 자요,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는 자입니다.

2) 그는 영적인 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담임목사는 영적인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목회는 세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권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의 설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믿음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어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담임목사에게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주어집니다. 로마서 12장에 의하면 첫째, 예언(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둘째,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셋째,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넷째, 권면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다섯째, 구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섯째, 다스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일곱째, 긍휼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 이외에도 고린도 전서 12장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나타나는 영적 은사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담임목사에게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목회는 사랑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3) 그는 설교와 가르침에 은사를 받았는가?

담임목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은 주일예배의 설교자와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 부름 받았다는 뜻입니다. 담임목사에게 있어서 설교나 성경을 가르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행정이나 헌금 수집이나 상담이나 심방이나 봉사는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일 설교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담임목사는 사려 깊고 정확하고 영감이 넘치는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사역의 방향을 설정해 주고 열매맺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목회의 위기는 담임목사의 설교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의 경우는 담임목사가 만능선수가 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담임목사가 말씀준비만 하고 있으면 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담임목사가 다른 일에 바쁘고 정력을 다른 곳에 쓰게 되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무기력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담임목사의 우선순위는 설교이며 설교를 통하여 교회의 예배가 살아나고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담임목사는 최소한 하루의 반나절 이상을 말씀준비와 기도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4) 그는 도덕적, 인격적 신뢰를 얻고 있는가?

담임목사의 힘은 영적인 권위에서 나오지만 또 하나의 힘은 그의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삶에서 나옵니다. “그의 말은 믿을 만하다” “그는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 “그의 말과 행동은 언제나 일치한다” “그는 사랑이 많고, 언제나 한결같고, 마음은 넓다” 등 그의 인격과 도덕성에 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도덕성과 인격은 언제나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항상 깨끗하고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편견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 인격이 필요합니다. 담임목사는 공명심도 없고 명예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5) 그는 양떼를 잘 돌보고 보호하는가?

담임목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 양떼를 잘 돌보고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 양떼란 하나님이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담임목사는 양떼를 잘 돌볼 뿐 아니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31절에 보면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엡 4:14).

6) 그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면서 제자를 키우고 있는가?

담임목사는 혼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의 영적 원리입니다.

로마서 12장 4-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담임목사는 그 자신이 예수님처럼 제자를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를 키우고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는 사람입니다.